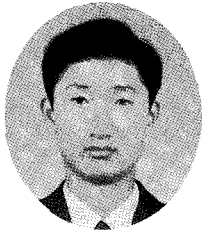


# 녹색소비를 겨냥한 기업의 판매전략



이재웅

(연합통신 경제3부기자)

**독** 일 속담에 “지구는 사람을 필요치 않을지 몰라도 인류는 지구를 떠나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인류는 이 속담이 내포하고 있는 경고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서식하던 동식물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는 등 우리나라도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아마 어린시절에 개구리 낚시를 했던 추억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다. 도랑이나 논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는 개구리 앞에 한입에 들어갈 만큼의 끝부분만 남겨놓은 강아지풀 줄기를 움직이면 개구리가 곤충인 줄 알고 재빨리 나뭇채 긴 혀로 입에 넣

는다. 이 순간 강아지풀 줄기를 당겨 개구리를 잡곤 했었다.

개구리는 모기, 나방, 벼멸구, 이화명충나방 등 많은 해충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개구리들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농약의 과도한 살포로 메뚜기, 개구리가 사라졌고 그 결과 뱀이 줄어들었으며 뱀의 감소는 들쥐의 번식을 가져와 결국 인간에게 유행성출혈열과 같은 재앙을 주고 있다.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 생물들을 사라지게 한 것이다.

지난 6월 국내 생물공학, 환경, 생태학 전문가들의 모임인 ‘생물다양성보전연구 프로젝트팀’은 ‘2000년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발전’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국내에 서식하는 척추동물 가운데 1백18종이 멸종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93종의 포유류 가운데 20%가 희귀종이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3백71종이 있는 조류상은 13%, 2백54종의 나비 동물상은 10%, 담수어류는 19%, 양서류는 60%, 파충류는 45%가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또 개발위주의 국토이용과 이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식물 다양성은 매년 1% 정도씩 줄어들어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식물가운데 2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과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공해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대기·수질·토양오염,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사막화, 녹지황폐, 산성비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으로써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류의 생존문제까지 위협받게 됐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발론자들과 환경론자들간에는 개발을 멈추느냐 않느냐는 논의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의 대안으로 요즘 환경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고 어려우나 구체적인 해결책중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환경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세계적으로 60년대까지의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긴박성에 상응한 전문인력의 급속한 필요성으로 인해 기술자나 전문가의 훈련이나 재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문제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료해졌다. 이는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일반 국민들과 환경전문기술자들 모두에게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회의는 환경파괴에 직면해 있는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환경교육의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교육은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환경의 개념에서부터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문제 발생 원인,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환경보전의 방안 등 포괄적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교육 분야는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교육의 경우 환경처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환경을 독립과목으로 신설, 한문·컴퓨터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등학교도 96년부터 독립과목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국 2천6백45개 중학교를 상대로 95년도 교육과정중 환경교과 선택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체의 1.9%인 51개 교만이 선택, 현실과 이상 사이에 아직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근래에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95년부터 적용될 중·고교 제6차 교육과정에 '환경'이 독립과목으로 개설됐고, 현재 각급 학교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중이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교양과목 등으로 환경강좌가 많은 관심속에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환경교육의 양적 성장에 맞춰 질적 내실화가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는 국내 및 국제적 관심사들이 적절히 여과 선정돼 반영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때이므로 ESSD와 같은 개념을 바르게 수용해 교육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래들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점차 구체화 되어가는 환경문제의 국제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자국과 같은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한 생산방식을 요구하거나 국제적 최저 환경기준의 설정 등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 것은 선진국에서 '녹색 소비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환경 친화적 상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시민의식이 환경보호를 사회

**환경 친화적 상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시민의식이 환경보호를 사회적 책임 차원뿐 아니라 중요한 판매전략의 한 요소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기업의 환경보호는 단순한 추가비용 지급이라는 성격보다 기업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적 책임 차원뿐 아니라 중요한 판매전략의 한 요소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기업의 환경보호는 단순한 추가비용 지급이라는 성격보다 기업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움직임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가고 있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경영목표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 환경경영체제의 구축이나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환경경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다.

다가올 그런 시대에 기업들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법적 규제처에 대응해 비용만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기업에서의 환경교육은 더욱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